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의복쇼핑성향 연구

구 자 명[†] · 이 명 희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1. 서론

의복쇼핑성향은 의복 구매시 소비자 개인의 행동, 흥미, 의견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패턴화된 쇼핑 양상으로, 의복쇼핑 시점과 쇼핑 전후에 나타나는 행동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이다.¹⁾ 이것은 소비자행동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시장 세분화하는데 유용하여 의류학에서 중요한 연구 변수로서 다루어져 왔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요인분석을 통하여 쇼핑성향 차원을 도출한 뒤 이 차원들을 기준으로 소비자를 유형화하여 성별, 연령, 사회계층, 결혼 여부, 학력, 소득 등의 인구통계적 변인과 소비자 가치와 같은 심리적 변인과 관련하여 소비자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구자 및 변인에 따라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 검토가 필요시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발표된 선행연구의 문헌고찰을 통하여 의복쇼핑성향이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라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내용분석 연구방법에 의하여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의복쇼핑성향의 차이를 파악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소비자 특성에 따른 의복쇼핑성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내용분석 연구방법에 의한 문헌연구이다. 1980년에서 2004년까지의 선행연구에서 인구통계적 변인과 의복쇼핑성향을 관련지어 연구한 조사연구 논문 17편을 수집하여 고찰하였다. 17편 중 5개는 외국문헌, 12개는 국내문헌이었다. 조사된 변인은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직업, 취업 여부, 학력, 소득, 사회계층, 거주지, 학년, 전공, 학교형태, 의복지출비, 용돈, 가족생활주기 등을 포함하였다.

3. 결과

인구통계적 변인과 관련된 의복쇼핑성향 연구의 전체적인 경향을 볼 때 연령에 따른 차이가 11편으로서 가장 많이 다루어졌고, 그 다음 결혼 여부와 소득에 따른 차이가 각각 10편, 직업이 8편으로 비교적 많이 조사되었다 (표 1).

[†] 교신저자 E-mail jmkuh@hanmail.net

1) 김세희, 이은영, "의복쇼핑성향의 개념 규명을 위한 문헌적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권 3/4호 (2004), pp 472-482

〈표 1〉 의복쇼핑성향 연구에서 고찰된 인구통계적 변인의 분포

| 변인 유의성 | 성별 | 연령 | 결혼 여부 | 직업 | 취업 여부 | 학력 | 소득 | 사회 계층 | 거주 지 | 학년 | 전공 | 학교 형태 | 의복 지출 비 | 용돈 | 가족 생활 주기 | 계 |
|-----------|------------|--------------|--------------|-------------|------------|------------|--------------|------------|------------|------------|------------|------------|---------------|------------|----------------|-------------|
| | 유/무 | 유/무 | 유/무 | 유/무 | 유/무 | 유/무 | 유/무 | 유/무 | 유/무 | 유/무 | 유/무 | 유/무 | 유/무 | 유/무 | 유/무 | 유/무 |
| 유의미 | 4 | 7 | 9 | 5 | 3 | 7 | 8 | 2 | 3 | 0 | 1 | 0 | 3 | 1 | 1 | 54 |
| 무의미 | 0 | 4 | 1 | 3 | 1 | 5 | 2 | 0 | 0 | 1 | 1 | 1 | 1 | 1 | 0 | 21 |
| 계 (%) | 4 (5.3) | 11 (14.7) | 10 (13.3) | 8 (10.7) | 4 (5.3) | 12 (16) | 10 (13.3) | 2 (2.7) | 3 (4.0) | 1 (1.3) | 2 (2.7) | 1 (2.7) | 4 (5.3) | 2 (2.7) | 1 (1.3) | 75 (100) |

성별과의 관계를 볼 때 전체 17편의 논문 중 4편 모두 유의적으로 나타나, 의복쇼핑성향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자는 쇼핑활동 자체를 즐기면서 쇼핑활동을 통해 의복이나 유행에 관한 정보를 탐색하려는 성향이 있었고, 남자는 쇼핑에 대하여 관심이 적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쇼핑하는 독자적 쇼핑성향이 높거나 쇼핑활동에 소비되는 시간이나 노력을 최소화하면서 쇼핑의 편의성을 추구하였다.

연령을 조사한 것은 11편이었는데 그 중 7편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4편은 연령에 따라 의복쇼핑성향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령이 젊은 층은 쇼핑을 즐기고 쇼핑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2) 여러 점포를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하는 쇼핑을 하며, 대형 몰에서 쇼핑을 하며, 연령이 높은 노년층은 쇼핑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판매원과 개인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결혼 여부는 10편 중 9편이 의미있는 차이가 있어 대부분의 연구에서 의복쇼핑성향은 결혼 여부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기혼여성은 혼자서 쇼핑하거나 쇼핑활동에 소비되는 시간이나 노력을 최소화하면서 쇼핑의 편의성을 추구하고 국산품을 선호하는 반면에 미혼 여성은 쇼핑을 즐기며 여러 점포를 계속해서 둘러보며 충동적 쇼핑성향이 높았다.

직업에 따른 차이 연구에서 8편 중 5편이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고 3편은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직업 여성은 자신이 좋아하는 점포에서 구입을 하며, 여대생은 경제적인 쇼핑성향을 지닌 소비자가 많았다. 편의적 쇼핑집단은 타 집단에 비해 가정주부의 비율이 높았다.

취업여부는 3편 중 2편이 의미가 있었다. 합리적 유형에는 취업 여성보다 비취업 여성이 더 많았고, 충동적 유형에는 취업여성이 더 많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에서는 12편 중 7편이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고 5편은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학력이 높은 소비자들은 쇼핑에 관심이 많고, 쇼핑을 즐기며, 유명상표의 제품을 구입하는 성향이 높았고 학력이 낮은 집단은 쇼핑에 관심이 적었다. 대학생 집단은 탐색적 쇼핑성향이 높은 반면 독자적 쇼핑성향은 낮았다. 차인숙, 안소현, 이경희3)는 대졸여성은 쇼핑고관여 집단, 고졸여성은 쇼핑저관여 집단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며, 대학생은 쾌락적 쇼핑집단에 많으나 편의적 쇼핑집단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된다고 하였다.

2) J. R. Lumpkin and B. A. Greenberg, "Apparel-Shopping Patterns of the Elderly Consumer," *Journal of Retailing* Vol 58, No 4 (1982), pp 68-89

3) 차인숙, 안소현, 이경희, "백화점 소비자의 의복쇼핑성향과 점포 선택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권 2호 (1999), pp 284-295.

소득은 10편 중 8편이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는데 소득이 높은 경우 그만큼 소비욕구가 커져 쇼핑을 즐기고 쇼핑에 관심이 많고 자신이 좋아하는 점포에서 구입하려고 하며, 외국상표에 대한 선호 성향이 높았다. 소득이 낮은 경우는 쇼핑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할인점 등 저렴한 점포들을 찾고 계속해서 여러 점포를 둘러보며 미리 세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당한 의복을 구매하려 하였다.

사회계층은 2편 모두 의미가 있었는데, 상류층일수록 쾌락적 쇼핑성향을 지니며, 쇼핑 고관여와 외국상표 선호 성향이 높았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에서는 4편 모두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강북지역 거주자는 편의적 유형, 강남지역 거주자는 충동적 유형에 많이 분포되었고, 서울지역 소비자는 과시적 쇼핑성향이 높았으며, 경기도 거주 소비자는 탐색적, 독자적 쇼핑성향이 높은 편이었다.

4. 결 론

인구통계적 변인과 관련된 의복쇼핑성향 연구에서는 주로 연령, 결혼 여부, 소득, 직업이 많이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남성은 독자적 쇼핑성향, 편의추구 쇼핑성향이 높으며, 여성은 쾌락적 쇼핑성향과 쇼핑고관여 성향이 높았다. 연령이 낮을수록 쾌락적 쇼핑성향, 탐색적 쇼핑성향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쇼핑 무관심형이나 판매원과 개인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았다. 결혼 여부에 따른 차이에서 기혼여성이 편의적, 독자적, 합리적 구매성향이 높았고, 미혼여성은 충동적, 가격의식적 쇼핑성향이 높았다. 직업별로 보면 가정주부는 편의추구 쇼핑성향이 높았으며, 여대생은 경제적 성향, 직업여성은 점포 충성적, 충동적 성향이 높았으며, 비취업 집단은 가격 의식적 쇼핑성향이 높았다.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쾌락적 성향, 쇼핑고관여, 외국 상표 추종, 과시적 쇼핑성향이 높았고, 학력과 소득이 낮은 경우 쇼핑저관여와 경제적 쇼핑성향이 높았다.

참고문헌

- 김세희, 이은영 (2004). "의복쇼핑성향의 개념 규명을 위한 문헌적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권 3/4호, pp. 472-482.
- 차인숙, 안소현, 이경희 (1999). "백화점 소비자의 의복쇼핑성향과 점포 선택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권 2호, pp. 284-295.
- Lumpkin, J. R. and Greenberg, B. A. (1982). "Apparel-Shopping Patterns of the Elderly Consumer." *Journal of Retailing* Vol. 58, No. 4, pp. 68-89.